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2. 10. 4

담당부서	건설경제연구실	연구책임자	이홍일 연구위원 박철한 연구원	전화번호	3441-0611 3441-0641
------	---------	-------	---------------------	------	------------------------

제 목: 2012년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9월 CBSI 11.6p 상승한 70.6 기록

- 계절적 요인, 기저효과, 9.10대책 발표 효과 등이 복합적 영향을 미쳐
을 최고치 경신 -

- 2012년 9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1.6p 상승한 70.6을 기록함.
- 이로써 CBSI가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기존 최고치 3월 69.9), 작년 12월 수준(71.6)에 근접함.
- 전월비 CBSI 상승 폭 역시 2010년 9월(전월비 12.5p 상승)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 폭임. CBSI는 전월인 8월에 59.0을 기록해 2010년 8월(50.1)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9월 들어 큰 폭으로 반등함.
- 이는 9월 들어 후반기가 끝남에 따라 공사물량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 전월 CBSI가 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기저효과, 9.10대책 발표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¹⁾.
- 그러나, 지수 자체는 아직 기준선인 100.0에 훨씬 못 미쳐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수준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임.
- 한편, 10월 CBSI 전망치는 9월 실적치 대비 4.1p 상승한 74.7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상승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10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9월보다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그러나, 이미 9월 CBSI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현재로서는 10월에 건설경기를 개선할만한 특별한 요인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월 CBSI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및 중견업체 지수가 전월비 큰 폭으로 상승했고, 중소기업 지수는 소폭 상승함.
- 대형업체 지수는 지난 5월 이후 3개월 동안 90선 초반을 유지하다가 지난 8월에는 12.9p 하락한 80.0을 기록했는데, 9월 들어 다시 전월비 11.7p 상승한 91.7을 기록하며 90선을 회복함.
- 중견업체 지수는 중견업체의 연이은 법정관리 신청으로 전월인 8월에 3년 6개월만에 최저치인 46.2를 기록했는데, 9월 들어서 전월비 15.3p 상승한 61.5를 기록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개선됨.
- 지난 5월 이후 4개월 동안 40선에 머물렀던 중소기업 지수 역시 9월 들어 전월비 7.3p 상승한 56.4를 기록해 5개월만에 다시 50선을 넘어섬.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와 자금 관련 상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7.8, 95.6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7.9, 79.2를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75.4, 78.8을 기록해 자금 관련 상황에도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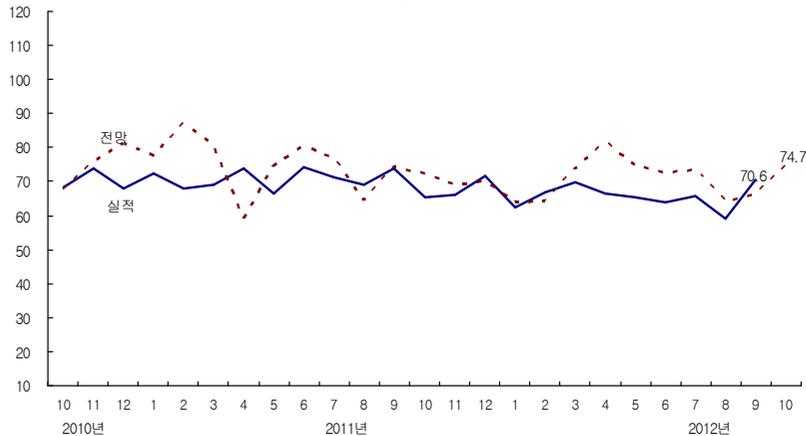
1) 조사기간을 감안할 때 극동건설 법정관리 신청은 CBSI 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2012년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9월 CBSI 11.6p 상승한 70.6 기록,
올해 최고치 경신

- 2012년 9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1.6p 상승한 70.6을 기록함.
 - 이로써 CBSI가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기존 최고치 3월 69.9), 작년 12월 수준(71.6)에 근접함.
 - 전월비 CBSI 상승 폭 역시 2010년 9월(전월비 12.5p 상승)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 폭임. CBSI는 전월인 8월에 59.0을 기록해 2010년 8월(50.1)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9월 들어 큰 폭으로 반등함.
 - 이는 9월 들어 흑서기가 끝남에 따라 공사물량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 전월 CBSI가 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기저효과, 9.10대책 발표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²⁾.
 - 그러나, 지수 자체는 아직 기준선인 100.0에 훨씬 못 미쳐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수준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임.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 조사기간을 감안할 때 극동건설 법정관리 신청은 CBSI 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및 중견업체 지수가 전월비 큰 폭으로 상승했고, 중소기업 지수는 소폭 상승함.
 - 대형업체 지수는 지난 5월 이후 3개월 동안 90선 초반을 유지하다가 지난 8월에는 12.9p 하락한 80.0을 기록했는데, 9월 들어 다시 전월비 11.7p 상승한 91.7을 기록하며 90선을 회복함.
 - 중견업체 지수는 중견업체의 연이은 법정관리 신청으로 전월인 8월에 3년 6개월만에 최저치인 46.2를 기록했는데, 9월 들어서 전월비 15.3p 상승한 61.5를 기록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개선됨.
 - 지난 5월 이후 4개월 동안 40선에 머물렀던 중소기업 지수 역시 9월 들어 전월비 7.3p 상승한 56.4를 기록해 5개월만에 다시 50선을 넘어섬.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분	2011년 11월	12월	2012년								9월		10월 전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실적	전월 전망치		
종합	66.0	71.6	62.3	66.7	69.9	66.4	65.4	63.8	65.7	59.0	70.6	66.6	74.7	
규모별	대형	84.6	83.3	76.9	92.9	85.7	71.4	92.3	92.9	92.9	80.0	91.7	85.7	91.7
	중견	64.0	68.0	69.6	58.3	68.0	72.0	58.3	50.0	56.0	46.2	61.5	60.0	69.2
	중소	46.4	61.8	36.8	45.6	53.4	54.1	41.8	45.6	44.8	49.1	56.4	51.8	61.1
지역별	서울	73.9	72.5	73.7	81.4	74.7	74.1	74.9	72.1	79.4	63.8	80.5	71.9	80.9
	지방	53.8	70.1	47.5	46.5	62.5	54.9	53.6	51.0	45.2	51.6	56.5	58.4	65.9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편, 10월 CBSI 전망치는 9월 실적치 대비 4.1p 상승한 74.7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상승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10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9월보다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그러나, 이미 9월 CBSI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현재로서는 10월에 건설경기를 개선할만한 특별한 요인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월 CBSI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지역별로 9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업체는 전월 대비 16.7p 상승한 80.5를 지방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4.9p 증가한 56.5를 기록함.
 - 서울업체 지수는 지난 서울지역의 대형 및 중견 업체들의 지수 하락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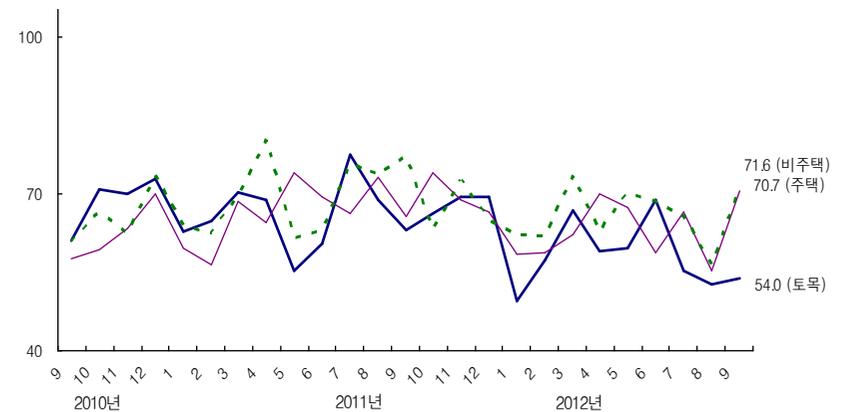
로 전월 보다 15.6p나 감소한 63.8을 기록,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 9월에는 이에 대한 통계적 반등으로 서울지역의 대형 및 중견 업체들의 지수가 상승해 전월 대비 16.7p 상승한 80.5를 기록, 지난 2월 81.4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함.
- 지방업체 지수는 8월에 전월 보다 6.4p 증가한 51.6을 기록한 이후 9월에도 4.9p 증가해 2달 연속 상승하였으며 올 들어 두 번째로 높은 56.5를 기록함. 그러나, 여전히 50선에 불과해 지방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임.

9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보다 10.2p 증가한 62.9

- 9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0.2p 증가한 62.9를 기록함.
 - 물량지수는 지난 5월 73.0을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감소, 8월에는 2년 내 최저치인 52.6을 기록하였음.
 - 통상적으로 9월에는 혹서기가 끝남에 따른 계절적인 요인으로 지수가 평균적으로 2~5p 정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올 9월 상승 폭은 이보다 두배 이상 높음.
 - 이는 지난 8월 지수가 50선에 불과하고 2년에 최저치를 기록한데 따른 영향과 계절적 요인이 서로 맞물려 작용해 반등효과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비록 지수가 전월보다 개선되었지만, 지수가 60선에 불과하고 9월 지수 62.9는 2개월 전인 7월 지수 69.2보다도 낮아 여전히 물량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공종별로 토목 물량지수가 54.0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주택 물량지수와 비주택 물량 지수가 각각 71.6, 70.7을 기록, 건축공종의 물량 지수가 전월보다 두드러지게 개선되었음.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8월 보다 15.3p 상승한 70.7을 기록, 지난 2011년 10월 74.0을 기록한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양호한 수치를 기록함.
 - 올 4월에도 비슷한 70.1을 기록하였었는데, 이후 다시 하락하여 8월에 50선까지 하락하였음. 물량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비주택 물량 지수는 지난 8월 3년 4개월 만에 50선인 56.5에 불과했는데, 9월 들어 전월보다 15.1p 상승한 71.6을 기록, 4개월 만에 증가함. 지난 8월 지수가 급격히 악화되는데 따른 반등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한편, 토목 물량지수는 전월 보다 1.3p 상승한 54.0을 기록함. 흑서기가 지나도 지수가 여전히 50선에 불과해 토목물량 상황의 부진이 9월까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됨.
- 업체 규모별로 중소기업체가 전월 보다 3.8p 하락하였으나, 대형과 중견업체가 각각 16.9p, 15.4p 상승해 전체 지수상승을 주도함.
- 대형과 중견업체 지수가 10p 이상 상승하였지만, 지난 8월 대형과 중견업체가 각각 전월대비 32.9p, 19.2p 하락했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반등했다고 보긴 어려움.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6.9p 증가한 76.9를 기록함. 주택과 비주택이 각각 92.3과 100.0으로 90선 이상이였으나 토목 물량이 61.5에 불과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 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62.9	76.9	65.4	43.6	71.6	50.5
	전망	74.9	92.3	69.2	61.1	80.0	67.7
토목	실적	54.0	61.5	60.0	38.2	60.7	44.3
	전망	68.4	76.9	70.8	55.6	71.4	64.2
주택	실적	70.7	92.3	66.7	50.0	77.7	60.8
	전망	70.2	84.6	65.4	58.7	74.5	64.1
비주택	실적	71.6	100.0	68.0	42.3	86.5	50.1
	전망	74.5	100.0	68.0	51.9	86.9	56.5

주 : 실적은 2012년 9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10월 예측지수임.

- 중견업체 물량지수는 지난 8월 3년 9개월만에 최저치인 50.0을 기록하였음. 9월에는 8월보다 15.4p 상승한 65.4를 기록해 지수가 개선되었음. 공종별로 토목 물량이 전월 보다 10.0p 상승한 60.0을, 주택과 비주택 물량이 각각 전월보다 14.7p, 18.0p 상승한 66.7, 68.0을 기록함. 비록 모두 전월보다 상승하였어도, 전체 지수와 공종별 지수가 모두 60선에 불과해 여전히 물량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는 지난 8월 전월보다 6.0p 상승한 47.4를 기록하였으나 9월에는 이보다 3.8p 하락한 43.6을 기록함. 공종별로 토목 물량이 38.2로 매우 부진하였으며, 주택과 비주택이 각각 50.0, 42.3을 기록함.
- 지역별 물량지수는 서울업체가 전월 대비 17.3p 증가한 71.6을, 지방업체는 전월보다 0.2p 상승한 50.5를 기록함.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지난 8월 전월보다 32.4p 감소한 54.3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기가 좋지 않았던 지난 2009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9월에는 이에 대한 통계적 반등으로 17.3p 증가한 71.6을 기록함.
 - 지방업체 물량지수는 지난 8월과 비슷한 수준인 50.5를 기록해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임.
- 2012년 10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9월 실적치보다 12.0p 상승한 74.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토목과 비주택 물량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14.4p, 2.9p 상승한 68.4, 7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반면,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0.2p 감소한 70.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공종별로 토목 물량 회복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으나, 지수가 여전히 60선에 불과해 10월에도 부진한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 물량지수는 9월 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주택 물량상황 회복에 대한 기대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재비와 자금 관련 상황에 다소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와 자금 관련 상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7.8, 95.6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7.9, 79.2를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75.4, 78.8을 기록해 자금 관련 상황에도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총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급	실적	75.4	100.0	55.6	69.1	80.9	67.7
		전망	81.0	100.0	69.2	72.2	82.0	79.6
	자금조달	실적	78.8	100.0	70.4	63.6	81.1	76.0
		전망	82.2	100.0	76.0	68.5	83.8	79.6
인력	수급	실적	97.8	100.0	100.0	92.7	100.9	93.3
		전망	97.8	100.0	100.0	92.6	100.9	93.2
	인건비	실적	87.9	100.0	92.6	68.5	96.9	75.0
		전망	90.5	100.0	100.0	68.5	99.1	78.2
자재	수급	실적	92.9	100.0	88.5	89.5	94.3	90.6
		전망	89.9	100.0	88.0	80.4	96.2	80.2
	비용	실적	78.3	100.0	73.1	58.9	89.5	61.1
		전망	76.6	100.0	68.0	58.9	89.0	57.8

주 : 실적은 2012년 9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10월 예측지수임.